

臨床獸醫師의 隘路

— 주로 都市開業獸醫師의 立場에서 —

서울金獸醫科病院長

金孝中

우리의 關心

지난 7月26~27日 兩日間에 걸쳐 大韓獸醫師會主權로 서울獸醫大會에서 臨床獸醫講習會가 盛況裡에 開催되었다. 今年講習會에 參席하여 느낀것은 過去 어느때보다 參席人員이 많았다는 點이다 參席人員으로 볼때 韓國獸醫有史以來의 大盛況이 었다고 斷定할수있다. 또한 參席人員이 構成比로 볼때 무엇보다도 地方公開業獸醫가 絕對多數를 차지한 反面 都市開業獸醫의 參席人員이 僅少 하였다는 點에 있어서 우리 都市開業獸醫로서 推測할수 있는것은 革命政府의 積極的인 畜政施策으로 因하여 地方公獸醫의 增員과 더불어 公獸醫에 對한 待遇改善에 따라 全般的으로 地方公獸醫의 經濟的地位가 向上 되었으리라고 推定할수있는 點과 5.16以後 처음으로 열린 行事에 參席하므로써 公獸醫들의 革命政府에 對한 보다 큰 期待가 作用되었으리라고 보며 이와는 反對現象으로 서울市內 70個公開業獸醫中에서 不過 30名이 參席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行事에 對한 無關心에도 基因되었지만 2日間の 講習會에 參席하므로써 休診으로 因하여 幾百圓의 收入을 노치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心情이 作用되었으리라는 것도 짐작된다.

當面한 課題

都市에서 開業하고 있는 臨床獸醫師諸位에 우리들이 當面한 諸課題中 率直히 表現하여 어떻게하면 都市開業獸醫師들이 잘살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深刻한 問題라고 思料된다. 現今의 獸醫界의 與件下에서 未來에 對한 漠然한 期待와 希望으로 獸醫療業을 營業한다는 것은 同業者 스스로가 自暴의 墓穴를 파는 結果를 招來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뜻있는 同業者間에 交換되는 支配的인 意見일 것이다.

이 問題는 비단 都市開業獸醫師에 局限된 杞憂라기 보다는 地方開業獸醫를 包含한 全體 獸醫師 나아가서

는 學窓에서 斯道의 眞理를 探究하고 있는 未來의 獸醫師들까지의 共通된 課題라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都市開業獸醫師의 立場에서 論題를 다루어 보고저 한다.

都市에 集中

가까운 例를 서울特別市內에 두고 볼때 5.6年만 하드라도 市內公開業獸醫師의 數는 20個所에 不過하든것이 近年에 이르러 70個所로 增加하였다.

家畜病院 經營上의 景氣面으로 볼때 3.4年前까지가 最盛期였고 當時를 所謂家畜病院 “붐”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家畜病院數增加의 原因으로는 “붐”이 餘波로 家畜病院만 하면 먹고살수 있다는 皮相的인 着眼으로 都市에 集中하지 않았든가 하는 感이 不無하며 全國的인 見地에서 考察할때 家畜數對 獸醫師數와의 比率이 先進外國에 比較할때 獸醫師가 過剩狀態에 있다는것과 아울러 後進獸醫師들이 年次的으로 相當數輩出되고 있는데 基因하는 것도 事實일 것이다.

臨床獸醫師 都市集中의 弊端을 서울鍾路區의 例로 볼때 患者對象이 小動物 特히 畜犬을 主診하고 있는 實情인바 今1962年度 春季狂犬病豫防注射 對象犬을 當局에서 調査한것을 보면 都合 3,000頭로 推定하였는데 鍾路區管內 開業獸醫師數가 12個處이므로 每病院當 平均頭數는 250頭에 不過하다 이와같은 數字를 基礎로 病院所在地域內 實存頭數를 2倍로 計算하여 每病院當 500頭로 假定하드라도 人醫에 있어서의 醫師 1人當 人口比例와 比較할때 都市開業獸醫의 活動分野란 極히 微微한存在라 아니할수 없다.

收入은 얼마나?

이와같이 活動範圍가 局限된 都市開業 獸醫師는 營業面에 있어서 果然 收支打算이 可能할까? 每病院當 全體對象犬數 500頭中 每日發病率을 2%인 10頭로 보고 蚤疥犬의 重症이라든가 求診될수 있는 畜主의 經

濟狀態等を考慮하여 日當外來求診件數는 50%인 5頭에 不過할것이다. 每件當 獸醫療報酬를 平均 70원으로 보면 日收 350원 月收 10,500원 年收 126,000원 이란計算이된다. 이數字는 外來患畜犬數를 基準으로 한것이므로 入院料 高價藥投藥料 手數料等を 計算하더라도 月收入額은 容易하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最小限 月收入額을 2만원乃至 3만원을 보고 營業費等 諸費用을 除外한 純利益이란 5~1만원으로 推算할수 있으나 이와같은 計算을 어디까지나 假想이며 實際로는 下廻할수도 있고 上廻할수도 있을 것이다. 勿論 公獸醫의 경우는 手當을 加算하여야 할것이지만 月 5000원이나 1만원으로 生活한다며는 公務員이나 軍人의 俸給에 比하여 決로 越等하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獸醫師의 社會的地位로 보아 軍人의 尉官級(報酬) 보다 적다. 이런 點으로 볼때 開業하는것 보다 俸給生活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見解가 나오지 않으런지 모르겠다.

酬價問題

酬價問題와 關聯해서 開業獸醫自身들이 좀더 慎重하게 다뤄야 할 點은 同業者間的 酬價를 程度以下の 廉價로 徵收하므로써 自身の 威信을 失墜하여 가면서까지 減收를 圖謀? (反對로 增收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處事는 同業者 相互間의 倫理問題를 度外視하고 他를 誹謗 甚之於는 中傷謀略의 根源이 되기도 할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自由競争을 憑藉하여 既設病院에 近接하여 開設하므로써 彼此間 不況을 難免케 하는 일도 있다고 들린다.

100원짜리 獸醫

家畜豫防藥生産의 民營化가 本格化되어가고 있는 現今에 있어서 서울과 같은 大都市에서는 對象患畜이 主로 畜犬이며 狂犬病防疫問題等도 우리들 都市獸醫의 主要한 收入源이 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例年の 舊澁를 脫皮치 못하고 豫防注射 無料實施란 엄청난 生業의 威脅을 받아가면서 까지 奉仕의 必要를 當하고 있지 안는가? 勿論 今年 처럼 每獸醫師當 1日 100원 이란 官給의 惠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市當局의 豫算上 測約도 짐작 할수 있겠으나 都大體 一金 100원이란 어디서 어떻게 算出한것인지 너무나 獸醫師들을 劣等視한 處事가 아니겠는가 또 이러한 錢대를 甘受하면서까지 天賦의 業에 執着하지 아니 할수 없는 自身들의 立場을 생각할때 實로 痛嘆之事라 아니할수 없다. 貴重한 國民의 稅金을 一部 家畜飼養家를 위하여 虛費한다는

것도 우수광 스투온 일이라 하겠거니와 家畜防疫을 보다 効率의인 國庫支出은 豫防藥의 生産으로부터 接種에 이르기까지 完全民營化를 育成하는데 있을것이다. 即自由民主主義體制의 原則下에서 特定人的 惠澤을 考慮함이 없이 自由經濟의 테두리 안에서 健全한 防疫事業을 推進함을 目標로하여야 할것이다.

時代的後進性

臨床獸醫 都市集中의 好對照는 人醫의 都市集中例를 들수 있거니와 都市 臨床獸醫의 立場에서 指摘할 또한 가지 問題點은 防疫事業民營化의 첫 段階로서 적어도 서울市內의 公獸醫制度를 廢止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全臨床獸醫에게 診療및 防疫事業에 協助할수 있는 機會均等의 措置가 있어야 할것이다.

獸醫師法 第19條에 依하면 “家畜診療業務의 適正을 圖謀 하기위하여 地方에 公獸醫를 配置한다”라고 明示되어 있는데 서울市配置 9個公獸醫를 全體 70個 開業獸醫와 더불어 診療業務의 適正을 期하는데 口實을 다하고 있으나 對하여서 許多한 問題點을 가진다. 配置地地方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아야할 公獸醫가 高貴한 國庫支出의 報酬 惠澤을 받으면서 自己營業인 家畜病院에서 有償診療하고 있는 現實은 多數 開業獸醫의 自由競争下에서는 分明히 二律背反의 모순이라 아니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公獸醫란 看板으로 意識的으로 一般 開業獸醫를 牽制하는 要素가 되기도 한다. 獸醫師란 法에 依하여 國家가 附與한 資格이며 公獸醫란 任命權者에 依하여 發令된 一種의 職階일것이다. 그렇다면 公獸醫業務인 家畜의 診療, 防疫, 保健等等을 一般 開業獸醫師라고 從事할수 없다는 法的根據는 發見할수 없을것이 아닌가 公獸醫規則(現獸醫師法으로 代置)制定當時의 立法精神은 舊帝政時 農會等에서 無償診療의 時代的 後進性을 內包한 政策의 踏襲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時代的 變遷은 過去的 最上級이 만드시 今日의 最上級이 될수 없으며 도리어 時代的 落後를 超來할것이다. 마라건데 都市 公開業獸醫의 差別觀念의 一掃를 期待하는 마음간절 하다.

經濟的地位向上이 앞서야

美國같은 곳에서는 狂犬病豫防注射料로 5弗式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1日 100원 日當으로 100頭以上 接種에 對한 奉仕를 하고 있으니 頭當 1원짜리가 되므로 結局 韓國獸醫는 美國獸醫의 650分之1의 待遇나 받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또한가지 廣義의 防疫問題로서 法定傳染病이 아닐찌

언정 디스토프 豫防接種 같은 것도 우리들 스스로가自省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近來와 같이 디스토프 豫防藥이 輸入되기 以前의 家畜病院의 求診患者이 8割까지 디스토프와 罹患者가 있었던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開業獸醫의 自律의인 民間防疫이 奏効한 탓인지 그 罹患者가 大幅減少된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罹患者가 줄었다는것은 그만큼 患者가 줄었다는 것을 意味하며 病院收入도 自然減收의 結果를 가져왔을것이다. 여기에 問題되는것은 豫防接種을 하므로써 防疫의 萬全을 期하여야함은 우리들의 任務이겠으나 여기에 對한 酬價基準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點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따지자면 乾燥백신의 例로 仕入原價 1頭分 600원 하는것을 或者에 따라서는 700원에 接種시키고 있다고 들리니 寒心하기 짝이없다. 諸費用을 除하면 不過 幾十원의 利潤을 보고 한다면 經營上의 問題로 나타날것이다. 勿論 薄利多賣의 商術 일런지 모르나 結果的으로는 獸醫師自身들의 社會的地位向上이란 遑遠한 他山之石이 되고 말것이 아닌가 隣國日本 같은 곳에서도 仕入原價의 倍額을 받고 있다고 들린다.

이번에 中央獸醫師會에 依하여 酬價規程이 改正引上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引上前에도 規程以下의 料金を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市當局에서는 規程以下로 받으라고 強調하고 있는 事實은 當局에서 도우리들의 實情을 너무 沒理解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들의 社會的地位向上은, 濟經的地位向上이 있어야만 하겠다.

稅金問題

納稅는 國民의 義務라고 하겠으나 所得稅, 同附加稅, 免許稅等 不少한 納稅負擔은 우리들로 하여금 悲鳴을 울리게 하고 있으나 免許稅의 例로 불매 地方稅法 第 162條 4種 12號에 依하면 獸醫師는 該當이 안된다고 하니 7月27日 臨床獸醫講習會에서 建議 採擇된 이 問題를 早速解決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國家的利益

都市 公開業獸醫의 隘路打開은 우리들 스스로가 操心하여 力을 기울여야 하겠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事實이지만 우리들의 共同利益을 위하여서는 個個人의 힘 보다는 法的으로 뒤받침된 獸醫師會로 하여금 問題解決의 先鋒의 役割을 擔當토록 하는것이 上策이라고 하겠거니와 그보다도 當局의 絶對的인 理解가 앞서야 할것이다. 그것은 一個人獸醫師가 獸醫事行政에 從事하는 公務員이라 할지라도 終身公務員이 아닌以上 또한 獸醫師란 天職을 저버리지않은限 우리와 같은 開業獸醫가 안되리라고 누가 斷言하겠는가 그러므로 全體獸醫師는 現代의 感覺속에 視野를 넓혀 獸醫師의 共同利益이 나아가서는 國家的利益으로 歸着된다는 態勢로 鎔心할일이 아닐까 한다.

(筆者는 서울樂園洞225㉸3580)

一抄 錄一

凍結乾燥한 生바이러스. 백신 및 生菌백신을 眞空下에 고무栓付바이알에 封入하였을 경우의 保存性

和蘭國, 듀파社 技術報告誌 Technical Bulletin 60 30/4/ E-1에 依하면 病原性이 없는 生백신을 接種하였을 경우 高度의 免疫을 얻을수 있는나와 與否는 使用한 菌株의 免疫力에 依한뿐 아니라 接種時에 백신中に 있는 細菌 및 바이러스의 含有量의 多少에 따라서 다르다. 卽 表示된 最終有効 期間에 있어서 백신中に 있는 바이러스 또는 細菌이 完全한 免疫을 주기에는 充分한 量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點을 確認하는 唯一한 方法은 製造直後의 백신이 保存期間中の 力價減退

를 補充하는데 充分한 여유가 있는가를 調査하면 된다.

고무栓付바이알中的 백신의 保存性에 對하여 保存溫度의 影響에 關하여 試驗한 結果

① 眞空下에 있어서 고무栓付바이알에 封入한 凍結乾燥生菌 또는 生바이러스의 保存性은 眞空下의 眞空封入한것 보다 分明히 짧다.

② 現在使用되고 있는 고무栓付바이알 封入백신은 眞空封入 보다 못하여 眞空封入에 依하여 백신의 保存性이 좋아지며 使用時期에 있어서 백신中の 細菌 또는 바이러스含有量의 低下가 僅少하였다.

③ 凍結乾燥한 生백신을 冷藏庫 以外에 貯藏함을 삼가하여야 한다. (金孝中抄)